

朴時仁教授 回甲 記念號에 부쳐서

학 과 장 張 旺 祿

여기에 위대한 老童이 있다. 그의 이름은 朴時仁 教授이다. 그는 1981년 11월 28일에 60回 生辰을 맞게 되어 모든 동료들이 뜻을 모아 축하연을 베풀기 위해 교수회관을 예약하고 음악대학 악대의 찬조 연주를 약속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는데 뜻밖에 당본인인 그가 굳이 사양해서 부득이 우리 科에서 해마다 내는 「영학논집」의 이번의 제 5호를 朴교수의 回甲을 기리는 호로 만드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朴교수가 회갑연을 반대하는 이유는 “나는 아직 십육세 소년의 기분으로 살고 있고,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내 나이 벌써 육십세가 된 것을 축하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니까.”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의 통념으로 回甲宴을 치르는 것은 한 사람이 老境에 든 것을 만천하에 고하는 의식이며 그러기에 「壽筵」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朴교수는 老人視되는 것을 거부하고 숫제 老化를 거부한다.

回甲 記念號라고 하면 으레 본인의 近影은 물론이고 경력과 논문 및 저서목록 등을 실는 것이 통례이지만 朴博士는 그런 것도 생략하기를 원해서 본인의 의사를 따르기로 했다. 하기야 사진을 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그의 주름진 童顏을 보고 지내고 있으며 또 그의 경력과 업적도 그의 덕망과 더불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터이므로 우리 同學들끼리 내는 이 작은 책에 구태어 그것을 되새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朴박사의 업적에서 특기할 것은 그가 英詩의 權威者인 동시에 알타이 神話에 관해서도 몇 권의 저서를 낼만큼 깊은 연구를 쌓았으며 우리 나라 古代史에도 조예가 깊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古代史가 아직도 日帝時代의 그릇된 史觀을 답습하고 있는

P
420
Se67h
1981
c.5

것을 개탄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使命感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史家들이 좀처럼 읽지 않는 중국의 古史書를 섭렵하며 考證的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 바, 근자에는 그의 學說에 호응하는 국사학자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朴朴사는 현행 국사 교과서의 古代史 부분이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의 外國文學 연구에는 숙명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韓國學 분야에서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단연 외국학자들의 追從을 불허하는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할 것이다.

차교수의 精力은 超人的이다. 그에겐 외손자까지 있지만(그의 장녀는 미국 대학에 현직 地理學 교수로 있다.) 당장 새 장가를 가고도 충분한 기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늘 옆에서 보고 있다. 출근시 부터 퇴근할 때까지 강의시간과 점심시간만 빼놓고는 그는 온종일 그의 연구실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버릇처럼 문을 안에서 잠가놓고 연구에 몰두한다. 며칠 전에도 人文館 二棟 3층의 「四人對」의 나머지 세 사람이 그의 문을 두드려 (강제로?) 열게한 적이 있었다. 방금 南鶴 高교수는 활을 쓰고 돌아왔고, 黃교수는 바둑을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으며 나는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오다가 우연한 일치로 셋이 복도에서 만나, 커피를 같이하기 위해 차교수의 잠근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문을 여는 차교수에게 던진 黃교수의 익살 한 마디——「대낮에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히로뽕이라도 만드는건가?」

그러나 차교수가 만들고 있는 것은 마약이 아니라 희안한 논문이었다. 즉 일본에서 발행되는 「えとのす」라는 학술잡지에 기고할 「日照大神の インセスト論を 駁する」라는 제목의 일본어 원고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 여학생같은 가늘고 정교한 글씨도 그의 특징이다. 그의 책상 위엔 「古事記」, 「日本書紀」, 「神武天皇」 등의 일본 서적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史記」, 「漢書」, 「後漢書」, 「遼史」, 「晉書(上下)」, 「魏書」, 「宋史」, 「五代史」, 「太平御覽」 등등의 검은 구식 클로스 카버의 커다란 史書類 책들이 짝 찬 그의 書架에서 뽑아낸 것들이다. 사실상 그 서가에 英文學에 관계된 책들은 *The Golden Treasury*와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Poetry*를 제외하고는 한 쪽 구석에 밀려나 있다. 史家로서도 一家見을 가지고 있는 朴교수는 우리 民族性이 감정에 치우치는 취약점을 한탄한다. 그 한 예로서, 王朝가 바뀔 때마다 새 통치자는 前王朝의 이미지와 업적까지도 말살하는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많은 귀중한 文化財가 소실되어 그 결과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史料가 훨씬 적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의 古史書에서 古代의 우리민족과 우리 나라의 版圖에 관계된 사항을 낱날이 꼬집어 내는 朴교수의 연구는 보람있는 일이라는 해도 결코 쉬운 일일 수는 없다.

우리는 朴교수의 건강을 염려한다. 아무리 女眞族의 후예다운 역센 건강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정신노동이 무제한 계속되면 몸에 스트레스가 오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심화되면 기껏 세운 그의 웅대한 “design”을 완성시키는데 차질이 올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朴교수의 回甲에 즈음하여 그의 돈독한 우정과 팔목할 업적을 찬양하고, 젊은 사람을 능가하는 그의 건강을 진심으로 치하하면서도, 나는 어쩐지 내가 막 번역을 끝낸 Faulkner의 *Absalom, Absalom!* 속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여 그를 일깨워주는 한마디 충고의 말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든다.

...time shortening ahead of him that could and would do things to his chances and possibilities even if he had no more doubt of his bones and flesh than he did of his will and courage. (Chapter VII)